

예 배	일 시	장 소
주일예배	주일 오후 1시 50분	예배당
청년 큐티 나눔	금요일 오후 9시	Zoom
한민 말씀방	매일	카카오톡

브레멘 한민교회

Bremen Han-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

주일 예배 봉사위원

	06. 26	07. 03	07. 10
대 표 기 도	김영희 권사	정용현 집사	황희순 집사
성 경 봉 독	김영희 권사	정용현 집사	황희순 집사

“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(히10:25)”

환영 :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.

예배 안내 : YouTube에서 „브레멘 한민교회“ 검색하세요.

교회소식

6월 축복인사 -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!(성도 간에)
 섬기는 자가 되자!(자신에게)

- 회중찬송과 합심기도에 열심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주님의 은혜가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도록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.
- 나눔의 시간 - 김영희 권사께서 섬겨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
- 마스크 착용 - 예배시간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입니다.



교회창립 | 1983년 10월 23일

교우동정

생일	

지난주통계

주일헌금	
십 일 조	
감사헌금	
선교헌금	
합계(Euro)	



담임목사 이 상 호(Sang Ho Rhee)
 예배만주 조 영 재 형제
 교회 : Anna-Stiegler-Str. 124 28277 Bremen
 전차 (Tram) 4번 / 버스 (Bus) 22, 29, 51, 52번
 정거장(H) : Kattenturm-Mitte

믿음의 부요를 보이고
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
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



<http://www.brehanmin.de>

주일 예배 Gottesdienst

-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
 송 영 Chor 반주자
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
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(새번역) **다같이**
 찬 송 Gemeindelied 452장 **다같이**
 기 도 Gebet 김효종 집사
 성경봉독 Predigttext 에 1 : 19 - 22(구p751)..... 김효종 집사
 (Esther 1:19-22)
 교회소식 Information & Begrüßung(새 가족 환영)..... 이상호 목사
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
 설 교 Predigt 능력이 주어진다면 **이상호 목사**
 * 파송찬양 Abschlusslied **선한 능력으로** **다같이**
 * 축 도 Segnungsgebet **이상호 목사**
 * 송 영 Chor 반주자

***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**

†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.

† 다음 주일 기도 담당 : 김영희 권사

†기도제목

1.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
2.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
3. 브레멘 대학 입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
4.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
5. 김선택, 장보경(헝가리)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

잠깐의 이익에 마음 뺏기지 않으려면

어느 여름날 편의점에 커피를 사서 나오는 길이었습시다.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. 분명 천 오백 원짜리 커피를 사고 만 원을 냈는데 손에는 오만 원짜리 지폐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. 아마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실수로 오천 원권 지폐를 오만 원권 지폐로 거슬러 준 것 같았습니다. 잘못된 계산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어야 했지만 그 순간 뜻하지 않게 고민이 몰려왔습니다. 얼마 전 택시에서 내리며 오천 원 대신 오만 원을 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. '하나님이 너의 억울함을 기억하셨던 거야. 그러니 공평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히 받아라.'는 마음과 '아니야 그것은 네 실수였잖아 나중에 당황할 어려운 저 학생을 생각해 봐'

부끄럽지만 저는 우두커니 서서 고민했고, 고민 끝에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.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오만 원을 내밀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학생은 감사합니다. 는 말과 함께 인사했습니다. 그 순간 제 얼굴이 너무나도 화끈거렸습니다. 몇 만원 때문에 잠시 망설였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창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편의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. "잘했다.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로 고민하지 말거라"

양심을 버리면서까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을 떠 올려야 합니다. "정직한 자는 그(하나님)의 얼굴을 뵈오리로다(시11:7)"

썩슬한 애플타이저 달콤한 디저트 / 문상현 목사
 (부여 시온감리교회)

*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확고하게 세워진 정체성은 어떤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는다. - 돈 고세트(담대하게 살라 저자, 출판사 규장) -